

미니인터뷰 - 김영완 경기도회 회장

## “공동도급, 하도급비율 강화의 관련조례 제정을 통해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터”

**세**계금융위기가 불러온 경기침체와 건설시장의 위축으로 우리 설비건설업계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시기에도 전국에서 둘째로 많은 회원사가 분포되어 있고, 건설경기가 가장 활발한 경기도회는 설비건설업의 발전과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 및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 사업추진에 적극 동참하여 설비건설업 발전에 많은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설비건설업 독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회원사의 수주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

경기도는 전국 시·도회에서 건설발주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설비건설시장규모가 가장 크며, 회원사의 전입이 활발한 가운데 해마다 공사실적 또한 증가하여 작년 한해 1조7천억원의 실적이 신고 뒀습니다. 그러나, 공사실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공사의 수익성 악화는



▲ 경기지역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과 권익 신장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김영완 경기도회 회장

더욱 심화되고 있어, 이런 불합리한 하도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확대,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간공사 4대 보험료의 적정한 반영방안 마련과 시공참여자제도의 부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하도급 수주질서를 문란케 하고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덤핑

수주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원사께서는 적정공사비 확보와 덤핑 수주 자제를 당부 드리며, 저 또한 덤핑수주 근절을 위한 홍보와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의무공동도급 49% 이상 반영을 위한 노력

경기도 공공공사 발주시 발주공사 중 지역의무공동도급을 기존의 49%이상에서 40%이상으로 축소하는 등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을 배려하지 않고 발주하는 사례가 빈

“경기도는 전국 시·도회에서 건설발주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설비건설시장규모가 가장 크며, 회원사의 전입이 활발한 가운데 해마다 공사실적 또한 증가하여 작년 한해 1조7천억원의 실적이 신고 뒀습니다. 그러나, 공사실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공사의 수익성 악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 이런 불합리한 하도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확대,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간공사 4대 보험료의 적정한 반영방안 마련과 시공참여자제도의 부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공사 발주시 발주공사 중 지역의무공동도급을 기존의 49%이상에서 40%이상으로 축소하는 등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을 배려하지 않고 발주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회는 경기도,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을 49%이상으로 적용토록 적극적인 홍보와 건의 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사께서는 지역공동도급의무비율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번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회는 경기도,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을 49%이상으로 적용토록 적극적인 홍보와 건의 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사께서는 지역공동도급의무비율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활용방안 마련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주물량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역 하도급공사의 70% 이상을 타지역에서 수주하고 있으며 경기도회원의 하도급율은 26%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회는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하도급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조례 제정하도록 노력하여 회원사의 경영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기계설비 분리발주 확대에 전력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민간건설사의 부도위기 등 열악한 건설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도회는 공공공사의 기계설비분리발주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

내 교육청의 학교시설공사 분리발주 물량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경기도 및 시·군의 분리발주 확대를 위하여 발주 담당자들과의 간담회, 방문 및 홍보를 통한 설득, 시·군의회 활동을 통한 간접 홍보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분리발주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설비건설업계의 궁극적 목표는 기계설비 시공관리 기준법 제정

우리 업계가 겸업제한폐지 유예기간으로 4년을 받았는데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비업계의 숙원사업인 기계설비 시공관리기준법 제정을 위하여 협회는 본회를 필두로 각 시·도회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회는 본회의 설비건설 발전방안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도내 회원사의 많은 동참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이처럼, 경기도회는 회원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통해 발전하고 있으며, 그동안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저의 모든 역량과 열정으로 회원사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 경기지역 기계설비 분리발주 확대 및 회원사 수주환경 개선에 최선



▲ 경기도내 회원사를 위해 기계설비 분리발주 확대 및 수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경기도회 직원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조창근 과장, 김성기 사무처장, 김순홍 실장, 남신영 주임)

## 1. 경기도 회원사 현황

### 1) 연도별 등록업체 현황

(2008. 10. 31 현재)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업체수	912	955	1,001	1,100

2) 시 · 군별 등록업체 현황

(2008. 10. 31 현재)

시·군	등록 수		업체수
	기계설비	가스1종	
수원시	94	29	111
성남시	94	16	105
의정부시	18	8	23
안양시	101	20	109
부천시	52	15	60
광명시	19	9	23
동두천시	1	2	2
안산시	78	29	94
고양시	63	16	73
과천시	6	-	6
구리시	18	9	23
평택시	28	13	38
남양주시	15	7	19
오산시	12	7	16
시흥시	56	14	68
군포시	29	14	37
의왕시	14	3	16
하남시	10	1	11
용인시	41	10	47
파주시	20	4	21
이천시	16	3	17
안성시	16	3	17
김포시	33	4	34
광주시	18	3	21
화성시	69	20	76
양주시	8	-	8
포천시	10	1	11
연천군	3	2	5
여주군	7	1	7
양평군	2	-	2
계	951	263	1,100

2. 경기도회에서 하는 일

1) 건설환경의 개선 및 활성화 추진

경기도의 수도권규제 완화 추진과 더불어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발주관서와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하여 경기도 발주공사의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확대를 추진하고,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 일원으로 건설단체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체계를 구축과 지역건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건설업계의 질서 및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 향상을 위한 관련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

2) 정부위탁업무의 공정수행

- 정부의 위탁업무로서 설비건설업자(기계설비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1종)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신고 등의 처리업무 및 공공공사 입찰 적격심사 자료의 엄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통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
- 관내 800여개 업체 1조6천억원 규모의 기성실적과 3,000여명의 기술인력, 정기결산서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업무 수행
- 건설기능인력의 원활한 수급확보를 위해 도입된 인정기능사 경력인정제도를 공정한 서류심사와 기능심사를 통하여 제1회~21회까지 464명의 인정기능사 합격자를 배출

3) 회원사 최우선의 서비스 향상

- 신속하고 정확한 회원정보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업무 서비스를 추진하여 회원사 업무편의를 제공하고, 회원사에 대한 친절·봉사의 정신을 모토로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 개선 추진

#### 4) 회원사의 각종 교육지원사업 추진

- 회원사의 경영지원 교육에 역점을 둔 건설공사 노무실무 교육 및 건설공사 실적신고 교육 등의 강습회를 개최하고, 건설관계법령해설 및 입찰·계약 제도 실무 등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회원사 임직원 업무효율 증진 도모

#### 5) 산학 협력 사업 추진

- 설비관련 기술의 연구와 발전을 통한 회원사의 설비기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대림대학, 수원과학대학, 신홍대학과 산학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을 추진

#### 6) 설비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동협력 장학사업 추진

- 설비건설기술인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 3개 대학 건축설비관련 학과 재학생들에게 상·하반기 장학금을 지원
- 장학사업 대상 대학 : 대림대학, 수원과학대학, 신홍대학 등
- 장학금 수혜자 및 금액 규모 : 연간12명, 연간 1천2백만원

#### 7) 회원사 대상 장학사업 추진

- 회원사들이 설비건설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설비건설업 발전을 위하여 회원사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지원 추진
- 장학사업 대상 : 회원사 대표 및 회원사 임직원의 자녀로서 설비관련학과 재학생
- 장학금 규모 : 연간 1천만원

### 3. 경기도회 회원사의 공사 수주환경

#### 1) 건설공사 기성실적현황

- 2003년부터 기성실적이 1조를 돌파,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기성실적은 1조 6,518억원으로 전국설비건설업체 실적의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 기성실적은 1조 7,723억원으로 전년대비 7.3%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기성실적의 원·하도급 비율

- 2006년도 기성실적 기준으로 원·하도급 비율은 50.4% : 49.6%로 전국평균 40.4%:59.6%를 비교해 볼 때 원도급 수주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지역 업체에 비해 경기도 설비업체의 수주패턴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최근 설비건설업 수주환경

- 최근 엄청난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일반건설업체의 최저가 하도급 중용, 일부업체의 덤핑수주 등 수주질서의 난무와 제도적으로 시공참여자 폐지와 4대 보험료 등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회원사의 공사수익은 공사원가 보전도 어려울 정도로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 4) 수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 설비건설업의 수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 발주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기계설비분리발주 홍보와 건의를 통하여 분리발주를 더욱 확대시키고, 건설단체연합회 결성을 통해 건설업체간 상생협력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수주질서 확립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위한 노력 등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를 통한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수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4. 경기지역의 주요 발주기관 현황 및 분리발주를 위한 노력

##### 1) 주요 발주기관 현황

- 경기도지역 주요 분리발주기관은 경기도 및 시·군, 경기교육청 및 산하 교육청,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시공사 등이 있다

##### 2) 분리발주를 위한 노력

-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학교시설공사의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가 활성화되어 타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되었으며 2004년도까지 학

교시설공사만 연간 400억원 이상 분리발주 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발주되었으나 2005년 이후 모든 정부 공공공사 300억원 이상에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적용되고, 학교시설공사도 BTL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관내 설비건설공사의 분리발주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처럼 급감한 기계설비분리발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발주담당공무원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고 기계설비 분리발주공사 물량 확보에 전념하여 연간 1,000억원 이상의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에서 사업예산의 많은 부분을 분리발주하고 있으며, 경기도 및 시·군 발주공사의 연간 발주계획을 파악하여 회원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 분리발주 타당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의회를 통하여 분리발주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 인질범과 인질의 사랑 - 스톡홀름 증후군

‘스톡홀름 증후군 (Stockholm syndrome)’이란 은행 강도 사건에서 유래한 범죄 심리학 용어다.

1973년 8월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은행에 무장 강도가 침입해 은행 직원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했다. 그리고 6일 후 경찰에 의해 강도들은 붙잡혔고 인질들은 풀려났다.

그런데 인질로 붙잡혀 있던 한 여성이 그 은행 강도 중의 한 명과 사랑에 빠졌음이 밝혀졌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인질로 잡혔던 사람이 인질범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경찰보다 인질범의 편을 들어주는 현상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스톡홀름 증후군’은 세 단계를 거쳐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 인질은 인질범이 자신을 해치지 않음을 고마워하고 범인에게 온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둘째, 인질범도 인질에게 긍

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셋째, 결국 인질과 인질범은 두려움을 같이 하는 ‘우리’라는 믿음이 생겨난다.

그런가 하면 ‘스톡홀름 신드롬’과 반대되는 현상도 일어난다. 즉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되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을 ‘리마 신드롬 (Lima syndrome)’이라고 한다.

‘리마 신드롬 (Lima syndrome)’은 1977년, 페루의 ‘리마’에서 반정부 조직 요원들이 127일 동안 인질들과 함께 지내면서 차츰 인질들에게 동화돼서 가족과 안부 편지를 주고받고 미사 의식도 열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사건에서 유래한 용어다.

인질이 인질범을 사랑하게 된다. 또는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되어 간다. 이런 범죄 심리는 영화 속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정이 들어가는 동기… 참 다양하다.